

극한호우 찾아지는데...아스팔트 도심 침수피해 키운다

최근 5년 광주 침수 피해 불투수·홍수 우려지역 주로 발생
2080년 하루 최다 강수량 163mm 극한호우 일상화 대비해야

광주시의 불투수면(아스팔트·콘크리트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지표면) 증가 등 지형·토지 변화가 잦은 도심 침수 원인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또 현재 추세대로 탄소배출이 지속되면 2080년에는 광주의 하루 최다 강수량이 163mm에 달하고 하루 80mm 이상 강수가 집중되는 호우일수는 연평균 1.8일에서 2.9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진흥원)이 발표한 ‘광주시 기후환경 현황 및 특성 특별호’에서 김상현 연구원은 최근 5년(2021~2025년) 광주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 지역과 홍수우려지역을 기반으로 침수피해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지난 7월 기록적 폭우에 대한 피해분석과 대처 방안도 담겼다.

분석결과 최근 5년간 광주에서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지역은 불투수 지역과 홍수 우려지역이 중첩된 도심과 하천 인근에 집중됐다.

북구 망월동과 청풍 동 등은 불투수 지역이나 홍수우려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나 저지대나 하천 인근에 위치해 국지적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한 해에만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일시·국지적 요인이지만, 반복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불투수 지역과 홍수 우려지역이 중첩된 곳으로 구조적 취약지라는 것이 연구결과다.

문제는 미래 광주의 집중호우 강도가 더 세질 것

이라는 데 있다.

현재와 같은 탄소배출이 이어지는 고배출 시나리오(SSP 5-8.5, 이산화탄소 농도1089ppm)의 경우 폭염일수가 40일 이상 늘어 여름이 빨리 시작되고 겨울이 줄어 여름철 집중호우(100mm이상)가 더 많아 질 것으로 분석됐다.

비가 오는 날은 늘지 않아도, 한 번에 내리는 비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2080~2100년 광주의 하루 최다 강수량은 현재(2000~2019년 평균) 122.2mm보다 41.6mm 많은 163.8mm에 달하고 호우일수(하루 강수량 80mm 이상)도 현재보다 연간 4~6일 증가한다.

강수강도(한 번에 내리는 평균 강수량)가 거세져 극한호우가 일상화 된다는 것이다.

저탄소 시나리오(SSP1-2.6)를 적용하면 연강수량 변화는 비교적 작지만, 여전히 강수 강도는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중·고탄소 시나리오(SSP2-4.5, SSP3-7.0, SSP5-8.5)에 비해 극한 강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탄소배출 억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도시 배수시설의 강우빈도 설계(100~200년 빈도)를 늘리고 우수관로 용량 확대와 지역내 대형 빗물 저류 시설 확보, 하점법랑 방지 제방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난 8일 오전 광주시 서구 양동북개사가 현장을 찾은 박창근 국정기획위원회 재난안전소 위원장이 최근 호우 피해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상습침수 주범’ 신안철교·양동시장 지하 교각 철거되나

국정기획위 광주 방문 현장점검

지역민들 하천 구조개선 요구 전달

광주시 북구 신안교의 신안철교 교각 일부를 철거하고, 하천을 직선화하는 등 광주시 침수 예방 대책이 정부 중앙부처에 공식 건의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광주시를 전국 최초 ‘재난안전예방 시범도시’로 지정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창근 국정기획위 재난안전소위 위원장은 지난 8일 광주시 서구 양동북개사가, 북구 신안교 등 상습 침수지역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서 양동북개사가 상인 등은 국정기획위에 양동북개사가 하부 지하주차장의 900여개 교각 중 일부를 철거해달라는 등 하천 구조 개선 요구를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또 침수 피해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된 신안철교 교각을 6개에서 2개로 줄이고 서방면 중 하천이 곡선으로 꺾이는 부분을 직선화해야 한다는 등 개선안을 전달했다.

박 위원장은 “광주를 비롯한 국내 도시들은 하천 복개, 배수로 설계, 제방·옹벽 등 인프라 개선 없이 도시 외연 확장만 반복해왔다”며 “지구는 난화로 인해 앞으로 극한 폭우는 빈번해질 것이고, 이대로라면 도심 홍수 피해 위험은 더욱 커지고 기

존 재난 시스템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근본적으로 도시 재난 대응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광주를 홍수 예방을 위한 전국 최초 재난안전예방 시범도시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현장점검 결과와 지자체, 시민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정리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재난안전예방 시범도시 지정 사업 관련 건의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마른김 가격 1년 6개월 넘게 강세 해수부, 20년만에 김 비축 재도입

수급 조절 통한 가격 안정 도모

정부가 마른 김 비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김 값 안정화와 김 양식 어가들의 수익 보장이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10일 “정부가 김 가격이 저렴할 때 수매해서 보관했다가 가격이 많이 오를 때 시중에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의 비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김 가격이 평년보다 40% 높은 상황에서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을 위해 20년 만에 마른김 비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른김 비축은 1979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됐다. 가격 폭락, 품질 저하 등을 이유로 중단된 지 거의 20년 만에 재도입에 나선 것이다.

해수부는 마른김 비축을 위해 비축 예산 증액을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나주에 있는 소비자본산물류센터를 증축하고 있는데 이곳에 김을 비축한다는 것이 해수부의 구상이다.

해수부는 양식 수산물 비축 품목을 늘리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마른김 외에 양식 수산물을 비축하려면 냉동 보관해야 하므로 냉동 기술도 연구·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마른김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해 7월 이후 장당 130원대 위에서 머물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마른김(종품) 평균 소매 가격은 10장에 1347원으로 평년(952원)보다 41.5% 높다.

마른김 가격은 지난해 봄부터 급등해 1년 6개월 동안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연평균 마른김(10장) 가격은 2023년 1019원에서 지난해 1271원으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 1384원까지 올랐다.

마른김 비축이 가능해지면 가격 안정과 함께 김 양식 어가들의 안정적인 물길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연합뉴스

특검,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부당이익 8억 1천만원 구속영장 적시

통일교 고가 물품 수수료 담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챙긴 부당이익을 8억1000만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특검팀이 김 여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러한 주가조작 부당이익액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특검팀은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가 통정거래(매수·매도할 사람이 사전에 가격을 정해놓고 일정기간 서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를 포함해 3700여 차례의 매매 주문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고 단순 방조자가 아닌 시세조종 공모자라고 판단했다.

구속영장에는 김 여사가 신분이 ‘정치 브로커’로 규정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물품들을 받았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2022년 4~8월께 전씨를 통해 다이아몬

드 목걸이·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물품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전씨도 윤씨에게 목걸이와 샤넬백 2개를 받긴 했지만 김 여사 측에 전달하진 않았다는 입장이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여사에게 물품이 전달됐는지 가 의혹의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였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제공받은 불법 여론조사 횡수를 공표·비공표 사례를 합쳐 50여회로 집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판 결 공 시

-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고정75 수산업법위반
- 피고인 : 김광윤

위 피고인은 수산업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5년 7월 25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임 성 민

판 결 공 시

-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고정75 수산업법위반
- 피고인 : 김지현

위 피고인은 수산업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5년 7월 25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임 성 민

분할합병 및 주권제출 공고

2025년 08월 04일 서영정보통신주식회사(“갑”)와 주식회사 남도전력(“을”)은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합병 제530조 제2항 이하에서 규정하는 회사분할절차에 따라 “갑”의 재산(영양) 일부(통신공사업무부문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식이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식이 바라며

분할대상 등록권·통신공사법 제 610427 호

2025년 8월 11일

“갑” 서영정보통신주식회사 (206311-0015293)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보은로 160-28

사내이사 이영선

“을” 주식회사 남도전력 (205311-0014899)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보은로 16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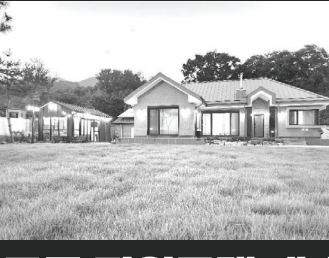
사내이사 이영선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고급 전원주택 매매
(명당 위치)
전남 담양 수북 쪽재골길

대지 704py, 주택 60p
카페부속건물 20p, 태양 6필로
최고급 독일 건축재료, 경치 최고.

금 매
매 16억 9천, 은행 11억.
인수가 5억 9천
010-3646-8700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 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